

*사진 출처 : 안양감리교회



한국교회 선교 실태

해외 선교사, '한국 귀국 후 이주민 선교로 전환하겠다' 8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10대 자살 실태
- ② 시도별 2030세대 인구 이동 현황

[넘버즈 칼럼]

성경적 리더십의 신비, '위대한 하강'

2025. 7. 1.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해외 선교사, ‘한국 귀국 후 이주민 선교로 전환하겠다’ 82%!

급변하는 세계 정세는 선교의 흐름과 전략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선교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국제 인구 이동과 미디어·과학 기술의 발전도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한국 내 이주민 수가 2024년 기준 2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들이 한국 사회의 주요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만큼, 선교의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하다.

성도, 목회자,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교회 선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민 선교에 대한 향후 참여/사역 의향률은 성도(전체) 65%, 목회자(현재 이주민 사역하지 않는 교회) 81%로 나타나 목회자들의 참여 의지가 특히 강하게 드러났다. 해외 선교사들도 이주민 사역 의향에 대해 긍정적이었는데, 한국 귀국 후 이주민 사역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선교사 비율은 82%에 달했다.

이번 <넘버즈 293호> ‘한국교회 선교 실태’ 편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재의 선교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참여하고 준비해야 할 선교 사역과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선교 실태 조사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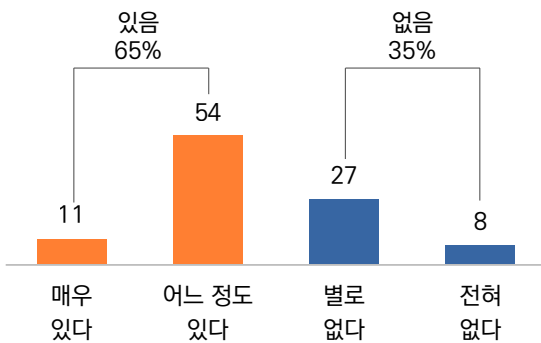
구 분	기독교인	담임목사	선교사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남녀(교회 출석자)	전국의 담임목사	한국교회가 파송한 해외 선교사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온라인 조사(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발송)	각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 및 문자를 통해 URL발송)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 표본)	총 500명 (유효 표본)	총 600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 할당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ing)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ing)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	-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 목회자 조사의 경우 교회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 - 선교사 조사는 KWMA가 발간한 '2022 한국선교현황 보고'에 나타난 선교사 연령 분포에 따라 가중치 부여)		
조사 기간	2024년 5월 24일 ~6월 3일 (총 11일간)	2024년 5월 23일 ~ 6월 3일 (총 12일간)	2024년 5월 17일 ~ 5월 29일 (13일간)
조사 주체	목회데이터연구소 / 기아대책 / 월드비전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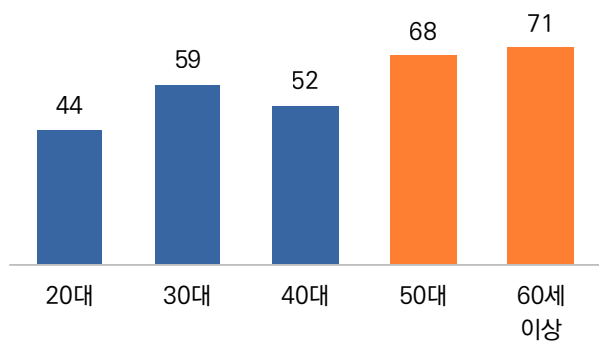
[선교 경험과 태도] 성도 3명 중 2명, 해외선교 '관심 있다'!

- 전국의 교회 출석 성도를 대상으로 해외선교에 대해 관심도를 질문한 결과, '관심 있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비율은 65%로, 출석교인(성도) 3명 중 2명이 해외선교에 일정 수준의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매우 관심 있다' 비율은 11%로 그쳐, 전반적인 관심도에 비해 높은 관심을 가진 응답자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 연령별 '50세 이상' 장노년층의 관심도가 70% 안팎으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44%로 가장 낮아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에서의 해외선교 관심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해외선교에 대한 관심 (출석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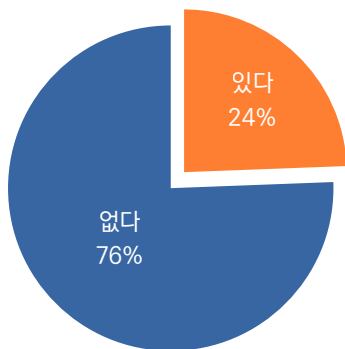
[그림] 연령별 해외선교 '관심 있음' 비율 (출석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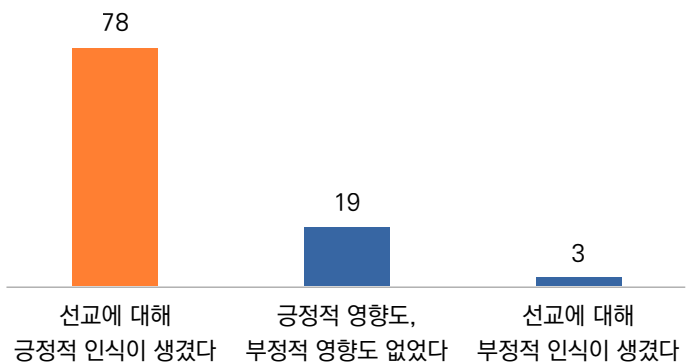
단기선교 경험자 78%, '선교에 긍정적 인식 생겨'!

- 단기선교/비전트립 경험에 대해서는 '없다' 76%, '있다' 24%로 성도 4명 중 1명은 단기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기선교에 참여자에게 단기선교 이후 선교에 대한 인식 변화를 묻은 결과, '긍정적 인식이 생겼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78%였고,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는 3%에 불과했다.
- 이는 단기선교 경험이 선교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중장기적 선교 사역에도 긍정적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단기선교/비전트립 여부 (출석교인)



[그림] 단기선교/비전트립 후 변화 (단기선교/비전트립 경험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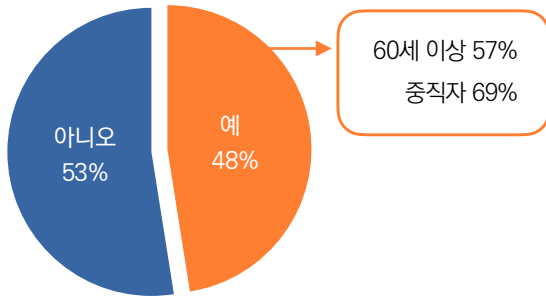
02

[선교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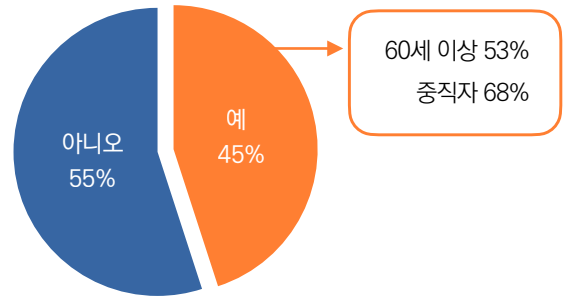
성도 절반 가까이, 물질로 선교 후원!

- 성도들을 대상으로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지를 묻은 결과, 48%가 '기도한다'고 응답했고, 물질로 선교 후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45%가 '그렇다'고 답해, 성도 절반 가까이가 현재 물질과 기도로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도/물질 후원 비율은 모두 '60세 이상'과 '중직자'일수록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선교사/선교지에 대한 기도 후원 여부 (출석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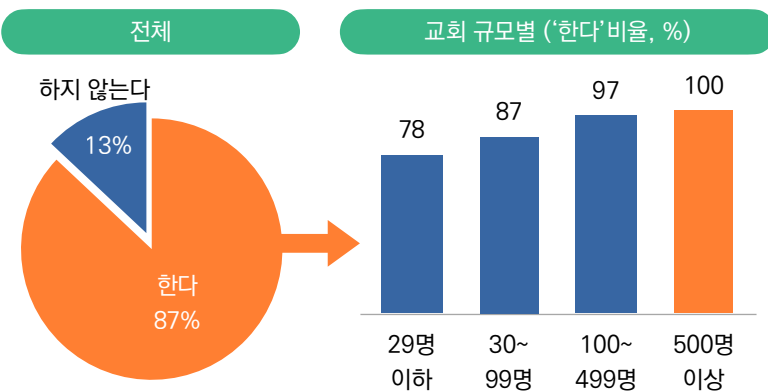
[그림] 선교사에 대한 물질 후원 여부 (출석교인)



소형 교회도 대부분이 해외 선교 사역 참여!

- 전체 교회의 87%는 선교사 파송 혹은 후원을 포함한 해외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회 규모별 살펴보면, 100명 이상 교회는 대다수(97~100%)가 해외 선교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29명 이하' 소형 교회도 사역 참여율이 78%로 교회 규모와 무관하게 선교 사역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그림] 해외 선교 사역 여부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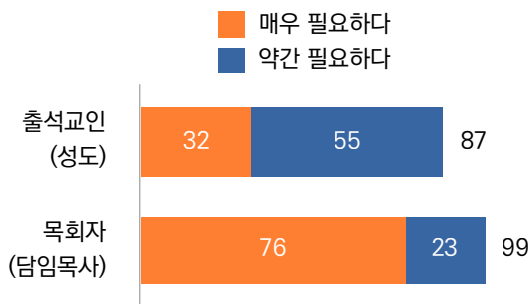
03

[이주민 선교 인식과 참여]

목회자 99%, '이주민 선교 필요'→실제 사역은 16%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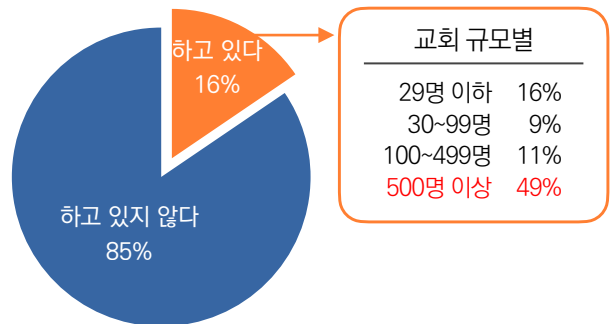
- 한국 내 이주민(체류 외국인)은 2024년 기준 26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섰다(법무부, 출입국 통계). 이제 이주민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 그렇다면 교회는 이주민 선교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 조사 결과, 성도는 87%, 목회자(담임목사)는 99%가 '이주민 선교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두 그룹 모두 이주민 선교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특히 목회자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가 76%로 성도보다 더욱 강하게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었다.
- 그러나, 실제 사역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목회자에게 현재 이주민 사역을 하는지 물었을 때,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는 16%에 그쳤다. 또한, 교회 규모별로는 '500명 이상' 교회(49%)와 500명 미만 중소형 교회(10% 내외) 간 이주민 선교 실천 수준에 있어 큰 격차를 보였다.

[그림] 이주민 선교의 필요성 ('필요하다' 비율*, %)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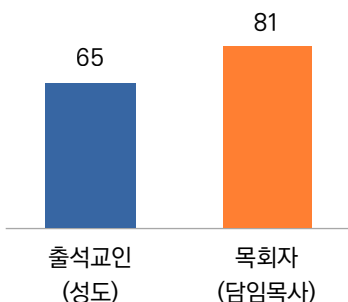
[그림] 이주민 선교 여부 (담임목사)



해외 선교사, '한국 귀국 후 이주민 선교로 전환하겠다'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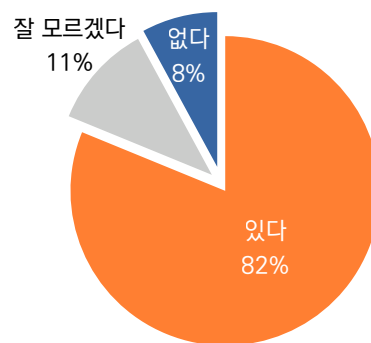
- 향후 이주민 선교에 참여하거나(성도 대상), 사역할 의향이 있는지(현재 이주민 사역 하지 않는 교회 목회자 대상)를 묻은 결과, 성도 65%, 목회자(담임목사) 81%가 '있다'고 응답했다. 목회자들의 대부분이 이주민 사역 의향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이번에는 선교사들에게 한국 귀국 후 이주민 사역으로의 전환 의향을 묻은 결과, 대부분의 선교사(82%)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향후 국내 이주민 선교에서 선교사들이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향후 이주민 선교 참여/사역 의향*
(전체 출석교인/현재 이주민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 목회자, '있음' 비율, %)



*4점 척도

[그림] 한국 귀국 후 '이주민 사역' 전환 의향*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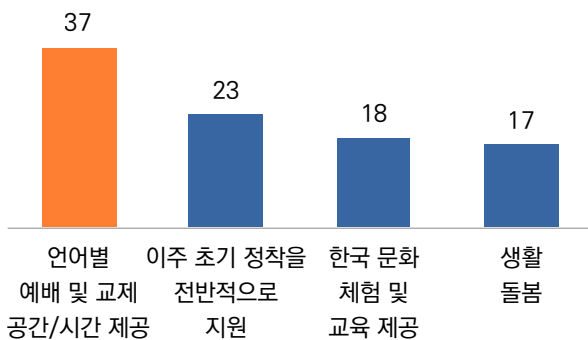
*4점 척도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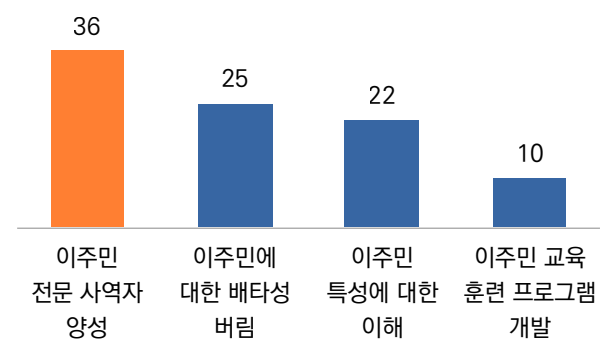
이주민 사역 준비, '전문 사역자 양성'이 핵심!

- 이주민 선교 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성도는 '언어별 예배 및 교제 공간/시간 제공'(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외에도 '이주 초기 정착을 전반적으로 지원' 23%, '한국 문화 체험 및 교육 제공' 18% 등이 뒤를 이어, 예배 접근성과 생활 밀착형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다.
- 한편, 현재 이주민 사역을 하거나 향후 할 의향이 있는 목회자(담임목사)에게 이주민 사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물은 결과, '이주민 전문 사역자 양성'이 3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주민에 대한 배타성 버림' 25%, '이주민 특성에 대한 이해' 22% 순이었다. 이는 실제 사역을 위한 인적 기반 마련과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림] 이주민 선교 시 필요한 지원 (출석교인, 상위 4개, %)



[그림] 이주민 사역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 (현재 이주민 사역을 하거나 향후 할 의향이 있는 교회, 상위 4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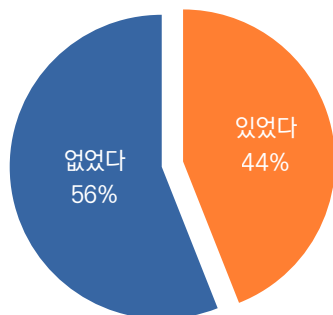
04

[선교 훈련과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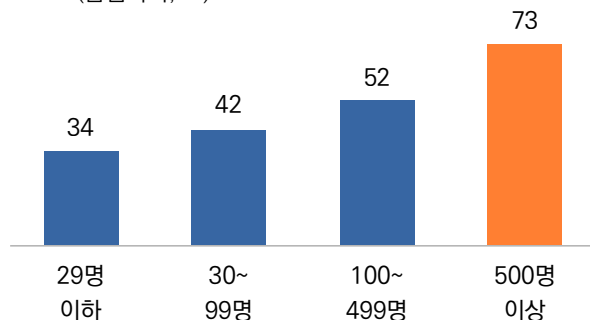
목회자 44%, 최근 3년 내 선교 교육·훈련 실시!

- 목회자(담임목사)를 대상으로 최근 3년 내 선교 교육/훈련을 실시했는지를 물은 결과, '있었다' 44%, '없었다' 56%로 나타났다.
- 교회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선교 교육 경험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500명 이상 교회의 73%가 교육을 실시한 반면, 29명 이하 교회는 34%에 불과해, 소형교회의 선교 훈련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을 반영한다.

[그림] 최근 3년 내 선교 교육/훈련 유무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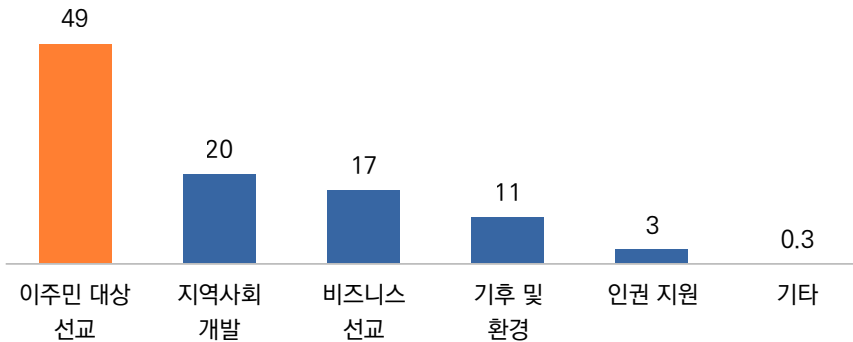
[그림] 교회 규모별 최근 3년 내 선교 교육/훈련 '있었다' 비율 (담임목사, %)



향후 보완이 필요한 선교 훈련 내용, ‘이주민 대상 사역’!

- 최근 3년 내 선교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한 교회 목회자들에게 향후 보완이 필요한 훈련 내용을 물은 결과, ‘이주민 대상 선교’(49%)가 가장 많이 꼽혔다.
- 이어서 ‘지역사회 개발’ 20%, ‘비즈니스 선교’ 17%, ‘기후 및 환경’ 11%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분야의 선교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특히 이주민 선교가 타 항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해, 미래 선교 훈련의 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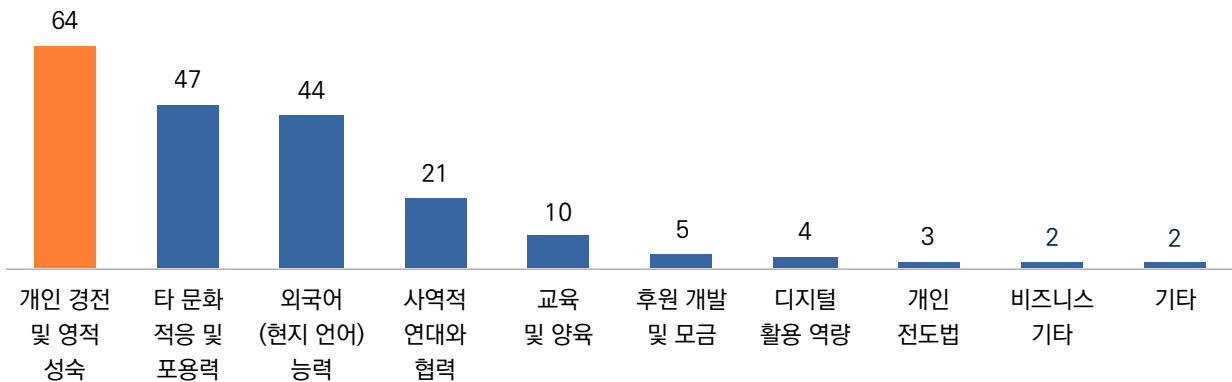
[그림] 향후 선교 훈련 시 추가/보완해야 할 내용 (최근 3년 내 선교 교육/훈련한 교회 목회자, %)



선교 후보생의 필수 역량, ‘타 문화 적응 및 포용력’ 보다는 ‘개인 경건/영적 성숙’!

- 선교사들에게 선교사 후보생이 갖춰야 할 역량에 관해 물은 결과, ‘개인 경건 및 영적 성숙’(64%)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했다. 다음으로 ‘타문화 적응 및 포용력’ 47%, ‘외국어 능력’ 44%, ‘사역적 연대와 협력’ 21%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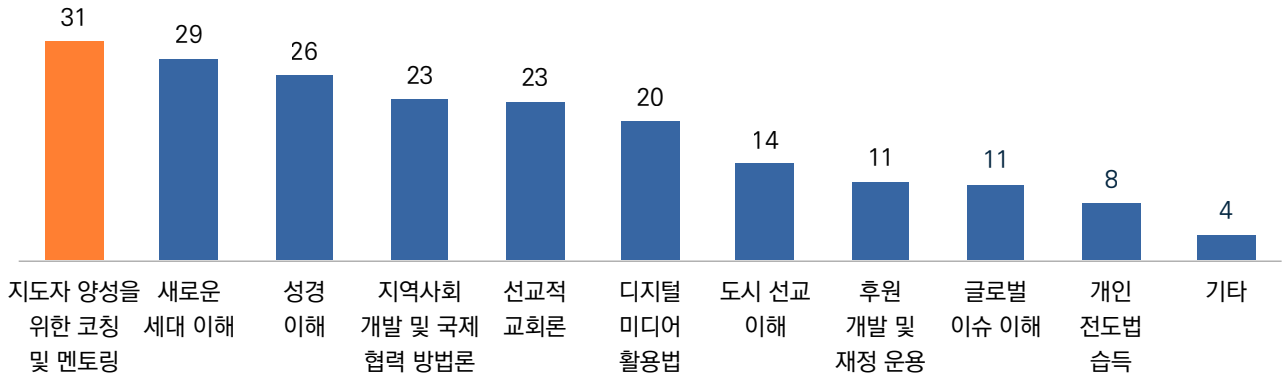
[그림] 선교사 후보생이 갖춰야 할 역량 (선교사, 1+2순위, %)



미래 선교 훈련, ‘리더십·새로운 세대 이해’가 핵심 과제!

- 선교사들에게 미래 선교 준비를 위해 포함해야 할 새로운 훈련 과정이 무엇인지 물었다. 가장 많이 선택된 항목은 ‘지도자 양성을 위한 코칭 및 멘토링’(31%)이었다. 이는 선교적 리더로서 리더십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 이어 ‘새로운 세대 이해’ 29%, ‘성경 이해’ 26%, ‘지역사회 개발 및 국제 협력 방법론’ 23%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림] 미래 선교 준비를 위한 새로운 훈련 과정 (선교사, 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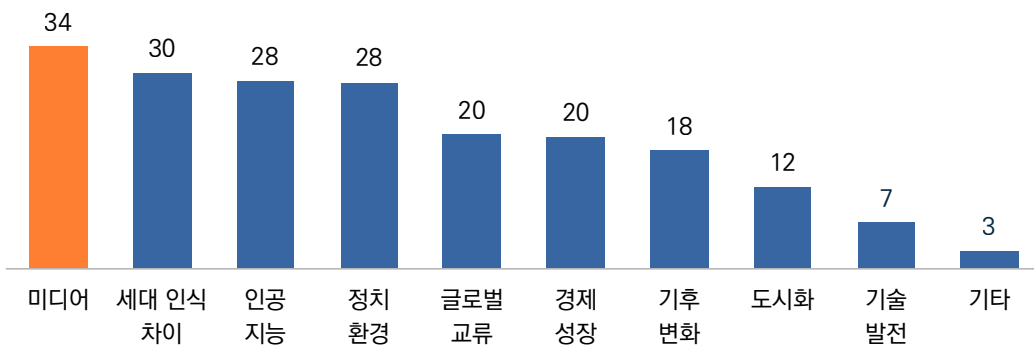


05

[미래 선교 환경] 미래 선교 키워드, ‘미디어·AI’!

- 선교사들에게 향후 10년간 세계 선교에 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1+2순위), ‘미디어’(34%)가 가장 높게 꼽혔다. 다음으로 ‘세대 인식 차이’ 30%, ‘인공지능’ 28%, ‘정치 환경’ 28% 등이 비슷하게 높았다. 이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세대 간 문화 격차가 선교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특히 미디어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선교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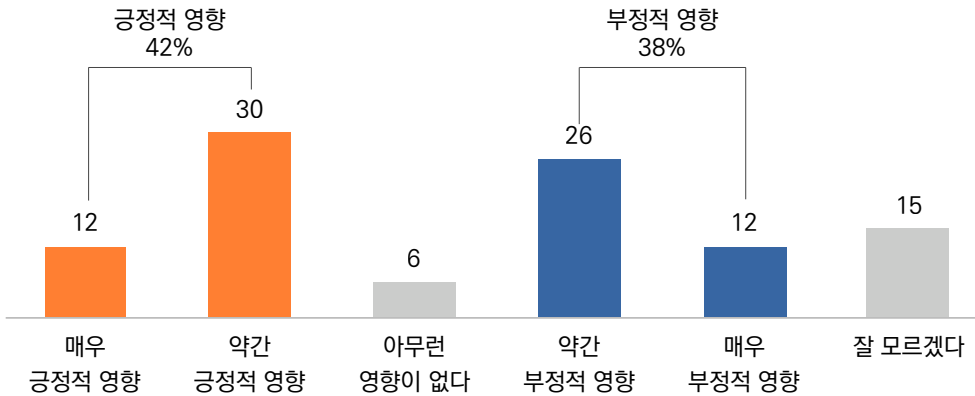
[그림] 향후 세계 선교에 영향을 미칠 요인 (선교사, 1+2순위, %)



인공지능, 선교에 부정보다 긍정적 영향 더 클 것!

- 앞서 선교사들이 AI를 미래 세계 선교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3순위)으로 꼽은 가운데, 인공지능의등장이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42%)이라는 응답이 ‘부정적 영향을 줄 것’(38%)보다 더 많았다.
-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이 선교에 위협이 아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선교사들의 긍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림] 인공지능(AI)이 선교에 미치는 영향* (선교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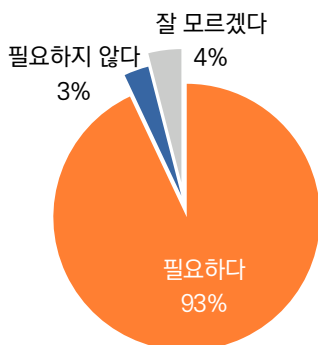
*5점 척도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향후 선교 방식, ‘현지 교회 중심 사역 개발’로의 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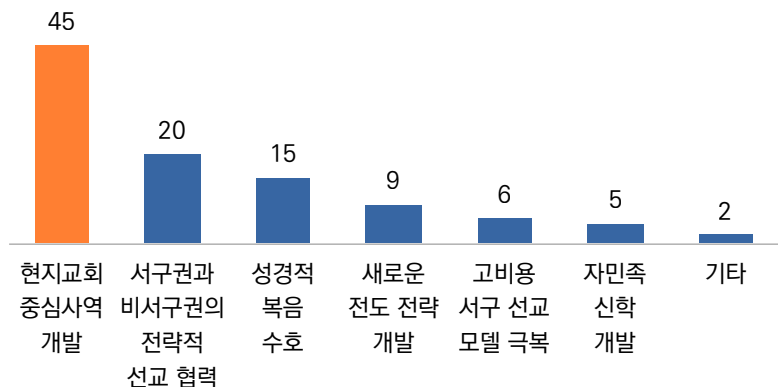
- 기독교가 더 이상 서구 중심의 종교가 아닌, 다양한 문화와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자리 잡은 ‘세계기독교(World Christianity)’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선교사들에게 이에 맞는 선교 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물었다.
- 그 결과, 선교사의 대다수(93%)가 선교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현지 교회 중심의 사역 개발’(4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서구권과 비서구권의 전략적 선교 협력’ 20%, ‘성경적 복음 수호’ 15% 등의 순이었다.

[그림] 세계기독교 시대에 맞춘 선교 방식 변화 필요성* (선교사)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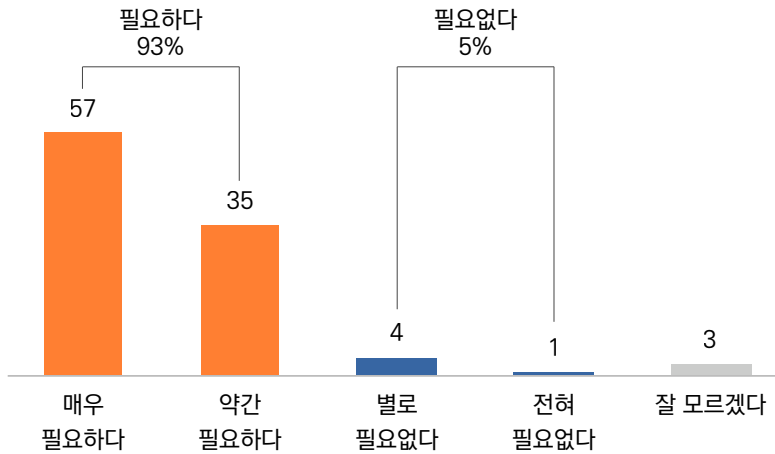
[그림] 선교 방식의 변화 방향성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선교사, %)



향후 선교, 기독교 NGO의 역할 매우 필요!

- 선교사들에게 향후 선교에서 기독교 NGO의 역할이 필요한지 묻은 결과, 무려 92%의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중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7%에 달해, 기독교 NGO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향후 선교 전략에 필수 요소로 인식됨을 보여준다.

[그림] 향후 선교에 있어 기독교 NGO의 필요성 (선교사, %)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이번호 요약

1. 미래 선교 키워드, ‘미디어·AI’!

- 선교사들에게 향후 10년간 세계 선교에 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1+2순위), ‘미디어’(34%)가 가장 높게 꼽혔다. 다음으로 ‘세대 인식 차이’ 30%, ‘인공지능’ 28%, ‘정치 환경’ 28% 등의 순이었다. 이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세대 간 문화 격차가 선교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향후 선교 방식, ‘현지 교회 중심 사역 개발’로의 전환 필요!

- 세계기독교 시대(World Christianity)를 살아가는 시점에서 이에 맞는 선교 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선교사들에게 묻은 결과, 대다수(93%)의 선교사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현지 교회 중심의 사역 개발’(45%)을 가장 많이 꼽았다.

3. 해외 선교사, ‘한국 귀국 후 이주민 선교로 전환하겠다’ 82%!

- 선교사들에게 한국 귀국 후 이주민 사역으로의 전환 의향을 묻은 결과, 대부분(82%)의 선교사가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이주, 다문화 그리고 다양성 (김영애 저, CLC(기독교문서선교회))

관련 성경 구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34절)

목회 적용점

한국 내 이주민이 265만 명을 넘어선 현재, 이들은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닌 선교의 중요한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이주민 선교하는 교회는 16%로 전국적으로 높지 않은데 이주민 선교에 대한 담임목사들의 인식은 매우 적극적이다. 전체 담임목사의 99%가 이주민 선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실제 향후 이주민 선교 사역을 의향을 보인 담임목사가 무려 81%나 되었다.

한편, 해외 선교사의 82%는 한국 귀국 후 이주민 선교로 사역을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국내 이주민 사역이 언어, 문화, 복음 전도 경험을 갖춘 선교 인력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전략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지역 교회와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주민은 우리 곁에 있는 선교지’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이제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열방이 찾아오는 시대! 새로운 선교전략의 시작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10대 자살 실태
2. 시도별 2030세대 인구 이동 현황

넘버즈 칼럼

성경적 리더십의 신비, '위대한 하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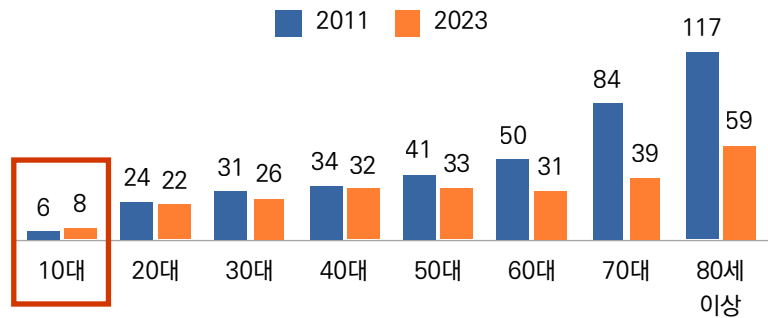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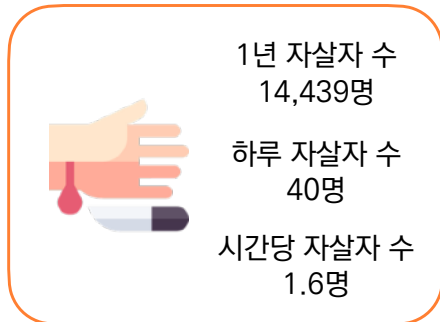


[10대 자살 실태] 12년 새(2011~2023년), 10대 자살률만 올랐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자살 사망자 수는 14,43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1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40명, 시간당 1.6명꼴이다.
- 2011년과 2023년 12년간 연령별 자살률 변화를 살펴보면 10대 자살률만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0만명당 6명이었던 10대 자살률은 12년 새 8명으로 올랐다.

[그림] 2024년 자살자 통계 (2024, 잠정치)

[그림] 연령별 자살률 (2011 vs 2023, 10만명당 명)



※출처 : 연합뉴스, 하루 40명 스스로 목숨 끊었다...작년 자살건수 13년 만에 최대, 2025.02.26.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6151200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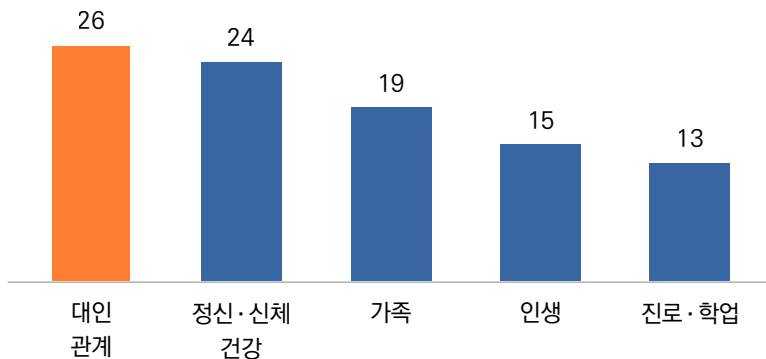
※출처 : 중앙일보, 열살도 안됐는데 우울증 입원... "이유가 뭐가"李도 걱정한 '자살률', 2025.06.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4901>)

10대의 고민, 학업보다 '관계'!

- 그렇다면 10대들은 어떤 어려움으로 가장 힘들어할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SOS생명의전화에 접수된 10대의 고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대인관계'(26%)였다. 이어 '정신·신체 건강' 24%, '가족' 19%, '인생' 15%, '진로·학업' 13% 순이었다.
- 학업 부담보다도 관계적 스트레스가 더 큰 10대의 고민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그림] 10대가 'SOS생명의전화'로 호소한 문제 (2024, 상위 5개, %)



※출처 : 중앙일보, 열살도 안됐는데 우울증 입원... "이유가 뭐가"李도 걱정한 '자살률', 2025.06.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4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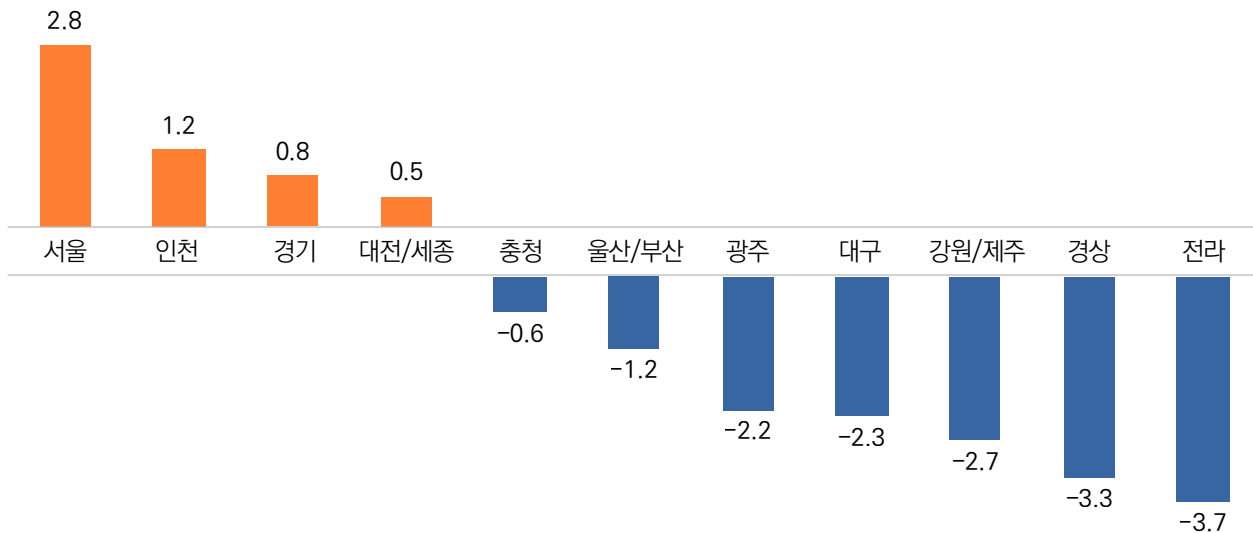


[시도별 2030세대 인구 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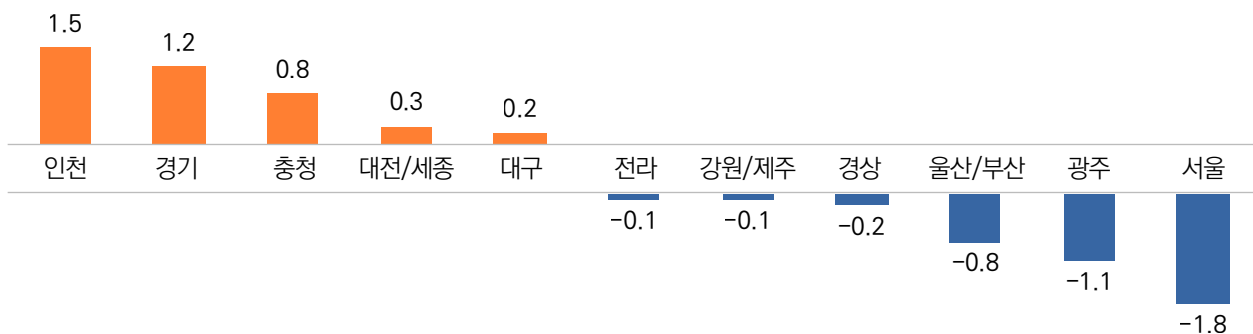
2030 청년층,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 뚜렷!

- 통계청의 2024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를 토대로 시도별 20~30대의 순이동률을 살펴본다. 순이동률은 특정 지역에서 순수하게 유입되거나 유출된 인구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이다. 어떤 지역에 들어온 사람이 나간 사람보다 더 많다면 +(순유입)로, 반대로 떠난 사람이 더 많다면 -(순유출)로 표기된다.
- 먼저 시도별 20대의 순이동률을 보면, '순유입률'은 서울(2.8%), 인천(1.2%), 경기(0.8%) 순으로 높았고, '순유출률'은 전라(-3.7%), 경상(-3.3%), 강원/제주(-2.7%) 순으로 높았다.
- 30대의 경우 '순유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1.5%)이었고, 이어 경기(1.2%), 충청(0.8%), 대전/세종(0.3%) 순이었다. 반면 '순유출률'은 '서울'(-1.8%)이 가장 높아 20대 인구 유입/유출과는 다른 양상을 띄었다. 이런 통계를 볼 때, 우리나라의 2030 청년세대의 지방에서 수도권 인구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시도별 20대 순이동률 (%)



[그림] 시도별 30대 순이동률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4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5.01.24.

Note) 용어 설명: 순이동(전입-전출), 이동률(주민등록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 순이동률(%) = 순이동자(전입-전출자) 수/해당 지역 인구 *100

성경적 리더십의 신비, '위대한 하강'

이춘성 박사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사무국장)

I. 들어가며: 리더십이 문제다.

다양한 크고 작은 공동체와 조직에서 그에 걸맞은 리더를 세우는 일은, 회사나 조직과 공동체를 개척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과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과정부터, 부임한 목사의 리더십이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수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른다. 그 과정에서 구성원이 이탈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공동체가 둘로 갈라지거나 무너지기도 한다. 이처럼 리더를 세우는 일은 그 공동체의 생존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문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교회에 필요한 성경적 리더십이 무엇인지 천천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현대 사회를 대표하는 경영학자들이 말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조건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며 마지막으로 성경적 리더십과 오늘날 세상이 요구하는 리더십 사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함으로써,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리더십의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현대 사회는 어떤 리더십을 원하는가?

A. 현대 리더십의 본질

오늘날 기업이든 정부든, 조직의 성패가 리더십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과연 이 조직에 어울리는 리더십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다. 조직마다 처한 환경과 구성원의 기질이 다르기에, 리더십의 유형을 하나의 틀로 정형화하기란 애초에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리더십 담론은 단순히 실천적 기술이나 행동 요령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처럼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리더십의 내면, 곧 리더의 존재와 태도에서 출발하는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경영학의 대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는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리더십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인간성'이 아니다—그런 것은 유창한 말솜씨에 불과할 수도 있다. 리더십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그것은 야망이다. 리더십이란 한 사람의 시야를 더 높은 목표로 끌어올리고, 그 사람의 성과 수준을 더 높은 기준으로 끌어올리며, 평범한 한계를 넘어서는 인격을 세우는 일이다.

드러커가 말하는 리더십은 결코 리더만을 홀로 중심에 두지 않는다. 오히려 참된 리더는 무대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팀원과 평범한 구성원들이 빛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준다. 스포트라이트는 리더 자신이 아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하며, 그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넘는 경험을 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드러커는 '성과'란 단순히 숫자로 드러나는 수익이나 결과가 아니라 일의 과정 속에서 구성원이 겪는 성장과 변화, 인격의 확장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주장한. 이러한 성장의 경험은, 이후 구성원이 새로운 일에 자발적으로 몰입하도록 만드는 내적 동기로 작용하며, 결국 더 큰 성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된다. (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oreanchristianethics.com/archive/2515>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26호 \(2025년 6월 4주\)](#)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직무 평가, 총리 후보 적합 여부, 경제 전망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58호 \(2025년 6월 4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 신뢰도, 국무총리 인선 평가, 추경 편성 필요성

사회 일반

["지자체 절반 소멸" 한국도 日 따라가나...해답은 '지방'에 있다](#)

노컷뉴스_2025.6.26.

[혼인·출생 10개월 연속 동반 상승...33년 반 만에 처음](#)

조선일보_2025.6.25.

[심각한 디지털미디어중독... 국민 70% 이상 "알고리즘 추천 규제 필요"](#)

국민일보_2025.6.24.

[1인 가구 800만 돌파...취업 가구도 사상 최대치](#)

데이터숨_2025.6.24.

[월급 397만원 받나요?...딱 대한민국 평균입니다](#)

매일경제_2025.6.26.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은 2030대...절반 이상은 수도권 거주자](#)

매일경제_2025.6.26.

[韓국방비, 정부지출내 비중은 세계 2위...어떻게 더 올리나](#)

노컷뉴스_2025.6.27.

아동 · 청소년 · 청년

[10대에게 '행복의 조건' 물었더니... 절반 이상 '재산'](#)

국민일보_2025.6.24.

[연간 치료비만 7600억...정신질환 청년 무려 123만명](#)

매일경제_2025.6.23.

[서울 전입 청년 절반은 '일자리' 때문...관악구에 가장 많아](#)

한겨레_2025.6.25.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 기업

[자영업자 10명 중 3명 “최저임금도 못 벌어”](#)

중앙일보_2025.6.27.

[해 뜨기 전부터 “오늘 하루도 망쳤다”…새벽 남구로역에 울려 퍼진 한숨소리](#)

매일경제_2025.6.26.

[중고신입 우대하는 기업들…대졸 취준생 53.9% “취업 진입장벽”](#)

연합뉴스_2025.6.24.

[꽁꽁 얼어붙은 채용 시장…구직자 83% “올 상반기 구직난 심화”](#)

연합뉴스_2025.6.26.

[500대 기업 본사 77%가 수도권에… 세종·강원은 1곳뿐](#)

국민일보_2025.6.25.

[프랜차이즈 매출 절반이 배달 플랫폼…매출의 24%가 수수료](#)

연합뉴스_2025.6.26.

기획기사 : [2025 자영업 리포트], (중앙일보)

[120m 걷는데 행인 10여명뿐…'공실 42%' 가로수길 비명](#) _2025.6.26.

['이것' 성지되자 손님 제 발로 왔다…공실무덤 명동 확 바뀐 비결](#) _2025.6.26.

[4년 장사 접고 이력서 내니 “공백기 기네요”…돌고돌아 재창업](#) _2025.6.26.

국제 · 환경

[英 72% “美 세계 평화 심각한 위협”…트럼프 이후 2배 늘었다](#)

중앙일보_2025.6.25.

[“결핵 앓는 북한 어린이 계속 늘어…영유아 사망률 한국의 6배”](#)

한겨레_2025.6.25.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술,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웍,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손제열

담임목사 청빙 컨설팅

청빙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청빙문화는 중직자 중심으로 후보자의 설교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목사 부임 후 갈등이 생기고 교인이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성도들의 참여와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청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빙 프로세스



청빙 컨설팅 프로그램

전문성

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성도의식 조사 전문성, 청빙 컨설팅 경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로 청빙 절차의 신뢰도와 전문성 높음

객관성

외부 기관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음

체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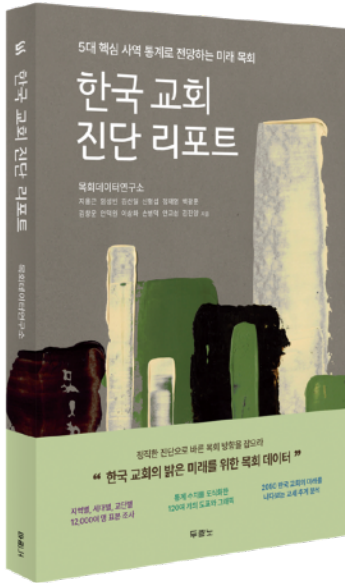
성도들의 선호 조건, 교회의 전통과 문화, 비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적합한 청빙 후보자 추천



목회데이터연구소는 귀 교회에 최적화된 목회자 청빙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의 : 목회데이터연구소 (Tel. 02-322-0726) 담당 : 김찬솔 과장

연구소 소식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출간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올해 2월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를 출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에 직면 했다는 인식 아래,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목회 5대 영역별 대규모 조사를 실시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현재 이 리포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책 활용을 통한 개교회 진단〉

책 맨 뒷장 큐알코드 통해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별첨 설문지를 사용, 개교회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저자

지용근, 임성빈, 김선일, 신형섭, 정재영, 백광훈
김창운, 안덕원, 이상화, 손병덕, 안교성, 김진양

책 구입 안내

Upward	Forward	Inward	Outward	Onward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교육	그리스도의 몸 친교	예수의 섬김 봉사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



「퓨처 처치」 출간 (두란노, 명성훈 저)

“지금 미래 교회(Future Church)가 돼라!”

미래교회연구소(Future Church Institute, FCI) 소장으로 신약교회 회복 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명성훈 박사의 신간 「퓨처 처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에 두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신약의 본질로 회복된 교회, 즉 ‘퓨처 처치’가 될 수 있을지를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으로 제시합니다.

도서 구매 링크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